

#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강의 22,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에 대한 비전, 활동하는 새 성전, 에스겔 43:1-46:24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22과목,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 새 성전의 가동에 대한 비전입니다. 에스겔 43:1-46:24.

이제 우리는 43장부터 46장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위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새 성전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러티브의 새로운 단계를 표시하는 새로운 비전이며, 그 내러티브는 40-48의 프레임워크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사의 안내자는 여전히 에스겔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43장 1절에서 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를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44장 1절에서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4절에서 그는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가더니 46장 19절에서 다시 계산하여 나를 입구로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46절 중 21절에서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간다.

그래서, 천사의 안내자가 여전히 그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새로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신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사가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신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이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3장 6절에서 누군가가 성전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17절 끝부분을 통해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가 또 나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 2절, 5장, 9장, 31장, 그리고 45장 1절과 46장 1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에스겔 자신을 가르치신다는 새로운 강조가 있습니다. 41:3부터 44:5까지는 이 환상의 단계에 대한 긴 소개 부분이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새로운 단계,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을 반영하며, 실제로는 10장에서 11장까지의 옛 성전에서 떠나는 일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초판에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부정적인 비전과 긍정적인 비전의 양극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옛 성전을 떠나시는 10장부터 11장까지의 대조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는 40장부터 42장까지의 성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미사용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활력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임재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도착하셔야 했습니다. 10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옛 성전의 동쪽 바깥문을 통해 남겨진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1절과 2a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비전을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부정적인 비전, 즉 심판의 신현이었습니다.

1장 서문에는 에스겔이 사역 전반기에 전해야 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럽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부적합한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인봉하는 심판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의 신현에 이르렀습니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문맥은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영광이 이 책의 앞부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이지만, 그 표현은 생물이 들고 다니는 움직이는 보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 앞부분에 나오는 이 소음, 이 거대한 물소리 때문에 그 소음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보좌를 옮길 때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다시 듣는 것과 같은 소리이며, 또 다른 계시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병거 왕좌에 오시는 장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124에서는 날개가 펄럭이는 소음이 있었는데, 이는 마치 거대한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러자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1040년에 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즉 매우 밝고 빛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사점을 가져와 그것이 다시 동일하지만 매우 다르고 이 새로운 맥락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열왕기상 8장과 11절의 메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이 봉헌식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직분을 행할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주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성전으로 오시는 것을 매우 눈에 띄게 나타내는 최초의 신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어둠 속에서 더욱 조용한 존재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대체되기 전에 극단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지금부터 지속적이고 다른 종류의 임재로 옮겨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일시적인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첫 번째 성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끝에서 나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장과 28절에서처럼 에스겔이 충격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더니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에 들어가시는데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글썄요, 그것은 열왕기상에서 본 것과 같은 문구입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성전에서 말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를 필멸의 존재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신성한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46, 24장의 끝 부분을 제외하고는 40~22장에서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하십니다. 지금 돌아오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는 에스겔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7절부터 9절이고 다른 하나는 10절부터 27절입니다. 첫째,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왕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좌라는 단어를 상당히 언급했습니다.

죽을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요, 내 발바닥이 있을 곳이다. 그리고 그 보좌는 아마도 지성소에 있을 것인데, 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성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발바닥이 닿는 곳은 예전에는 첫 번째 성전을 담당했던 방주였는데 이제는 성전 그 자체, 성전 건물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기록에는 법궤에 대한 언급이나 법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 자신의 더 큰 임재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며 상징은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왕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왕족의 표현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이 왕실 용어의 사용으로 성취됩니다. 내가 말했듯이, 성전 건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간주되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성전을 포로 이전의 옛 성전과 구별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방식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7절 하반절을 보면 옛 성전에 있던 것이 새 성전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죽은 왕들의 기념비를 번역한 것은 개정된 영어성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전 뜰에 안치되었으며 죽은 왕들을 기리는 장례식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물건이 될 것이므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오래된 사원과 관련하여 더 큰 궁전 단지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궁전 단지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사이에는 담이 있을 뿐이요, 성전과 왕궁 사이에는 담이 있을 뿐이니라.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은 평범하고 세속적이며 이교 관습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왕들의 존재로 인해 새 성전이 다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한 측면에서 보면 사원은 궁전 지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도 없다는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 특별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조차도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의 끝부분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10절부터 27절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0장부터 12장까지이다. 에스겔은 유배자들에게 새 성전의 배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말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여줄 것이며, 8장과 9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성전 지역 내부에 이교 관습을 통합함으로써 그들이 옛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 얼마나 부족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례자들을 선별하여 성전에 들어올 때 잘못된 삶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거대한 문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8장 이하에서는 결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원에 대한 접근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또한 성전 운영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절차를 전할 것인데, 이는 나머지 43장과 44장부터 36장까지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것이 성전의 규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12절은 43, 13, 46절의 나머지 환상에 대한 일종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제단 성별을 준비합니다. 이제 성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희생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8장부터 27장까지의 봉헌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3-17장에는 18-27장에서 재사용될 기술 용어를 포함하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기 13-17장에서는 제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전 장에서는 안뜰에 있는 제단, 곧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속죄하는 부정적인 희생의 희생과 예배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희생의 희생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매우 큰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세 조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블록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다른 작은 블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희생의 불을 위한 높은 난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받침돌 주위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안뜰을 그 피로부터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홈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블록은 약 28제곱피트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구조는 안뜰 위로 약 5미터 정도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제단 동쪽에는 난로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 건물을 향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다른 쪽에 놓여 있었다면 그는 성전을 등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전 장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의 일부 특징이었던 커다란 금지 행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의 세 번째 부분인 18-2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제단의 성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데는 일반 재료를 가져와 사용했으며 그것들을 성별해야 했습니다. 불경한 물건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의식이 있기 전에 제단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실제 제물을 난로 위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에서 빼낸 피의 일부를 제단 옆에 뿌려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구약의 종교적 사고에서 속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 윗부분에 튀는 피를 배수하기 위해 가장 낮은 밑바닥 둘레에 홈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이 다가옵니다.

첫째 날에 제사장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제단의 여러 부분에 피를 바른 다음, 이전에 사용했던 일반적인 재료인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을 정화하기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염소 한 마리와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엿새 동안은 둘째 날의 절차를 엿새 동안 반복하라고 26절은 말합니다.

27절 이 날이 지나고 팔일 만에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리니 제사장은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 위에 드리고 너희를 받으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7절의 '너'는 실제로 복수형으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제 국민들이 희생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희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번제물이 있었습니다. 동물 전체가 희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번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죄와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번제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결한 예배를 위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물 자체는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기에는 웰빙의 제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NIV에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가장 잘 번역할 수 있는지 결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부분 제사라는 것입니다. 희생 동물의 일부만 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제사 음식으로 먹도록 예배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너희 죄를 위한 제물을 받아들이고, 너희 예배의 제물도 받아들이겠다.

내가 말했듯이 여기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44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았지만 그 영은 에스겔을 공중을 통해 안뜰로 데려갔습니다. 전에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에스겔은 두 발로 일어서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운반되는 대신 걸어야 합니다. 그는 천사에 의해 바깥뜰, 즉 현재의 환상이 43:1에서 시작된 동쪽 문루 서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을 때, 동쪽 문루 안쪽에서 그는 볼 수 있고, 문루의 복도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먼 끝에 있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동쪽 문루가 관련된 문루의 문은 왜 닫혀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2절부터 4절까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쪽 문을 통해 바깥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깥뜰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과 남쪽에 있는 다른 두 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동쪽 문을 결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문루에는 특별한 거룩함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결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거룩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왕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왕은 왕자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King과 함께 이전에 때때로 그 레이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언제나 왕자야.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용어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왕자라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적인 공간이 된다.

이 동쪽 문루의 또 다른 용도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지만 왕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분적으로 제물을 바쳐 종교적인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안쪽의 경계 벽을 따라 쪽 둘러보면 30개의 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약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접수 담당 신부님을 만나서 그 방을 예약하고

'11시부터 가족들과 함께 묵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이 희생의 식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식사를 위해 신성한 동쪽 문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높은 지위 때문에, 그리고 그 높은 지위와 관련된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 때문에. 그리고 4-9로 서론을 마무리한다. 4절에서 에스겔은 안쪽 북쪽 문을 통해 안뜰로 다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성전 건물을 그 빛으로 채우고 있음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은 오직 기능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분의 살아있는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원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비밀의 방아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신현으로 상징됩니다.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물론, 신현이 있는 후에 그 영광이 사라질 때, 그 영광은 덜하지만 실제적인 형태로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지역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우리는 5절에서 이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4장부터 46장까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종의 헤드라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잘 살펴보고,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분은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라. 성전의 모든 의식과 그 모든 율례와 성전 운영의 모든 절차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성소에서 제외될 사람을 모두 잘 살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자료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장. 바깥쪽 문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곳에 접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오직 바깥뜰에만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직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접근하여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바깥문을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안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될 것이고 그들은 사원 건물과 그에 인접한 건물들의 본당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즉 특별한 지역은 사제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글쎄, 이상으로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긴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4장 6절부터 31장까지의 첫 번째 주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세 가지 주요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성전 지역의 인력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6장부터 16장까지는 지금 성전 직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레위인도 있어야 하고 제사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예전 사찰 절차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어서 뭔가 심각한데요. 이 내용은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궁궐 북쪽 끝에 있는 옛 성전에서는 편의상 왕의 호위병들이 성전 문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상과 11장에서 두 곳에서 이 파수꾼들을 불렀다는 것을 읽습니다. 카리테스.

아니요, 열왕기하 11장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낙성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왕에 관한 기록에서는 우연히 그 일들이 언급됩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과 19절. 여호야다가 가리 족속의 대장들과 호위병들을 불러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오니라. 그리고 이 카리테스는 19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는 지휘관들과 가리아 사람들과 경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Carites 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소아시아 남서부의 왕국인 카리아(Caria)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병 부대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왕실 봉사에 참여하는 용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스위스 경비병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외국 용병이 자국 군인, 내국인보다 왕에게 더 충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분명히 덜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지키는 일은 외국 선교사들과 외국 용병들에게만 맡겨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오, 이것은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이들 외국 용병들은 왕실 근위병으로서 궁궐 북쪽의 사찰 지역을 지키는 일에도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비원인 적절한 성직자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10-14에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이들 외국 용병들을 대신하여 성전 지역을 경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동물을 도살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인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완전한 제사장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역할도 적고 성전 의무도 적습니다. 그리고 10-14에는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에는 불특정 종교적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행간을 읽으면 그것은 이교의 종교적 영향을 받아 그 지역의 산당을 운영하는 것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들은 더 일반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원 경비원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문 경비대,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성전 의무입니다. 그들은 백성과 교류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이익을 대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직원의 2 계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5-16장에서는 특별한 계열의 제사장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단 의무와 동물 희생 제사, 안뜰과 성전 본당에 출입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전 직원들, 특히 문루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바깥뜰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안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31일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들은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거룩함은 17-31절에 4번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생활 방식에 거룩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19절에는 안뜰에서 근무할 때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의 재질은 아마포로 하라. 그리고 양털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땀을 포함하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모는 없고 린넨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에도 조심해야 했다. 깔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깎아서도 안 되고, 너무 길어서도 안 됐다.

그리고 21절에도 근무 중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22년에는 신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혼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23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깨끗한지에 관해 가르치는 종교 교사로서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종교 문제에 대한 재판관으로서 또 다른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 법정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23년과 24년에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두 가지 역할을 통해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시, 25시부터 27시까지의 시체가 부정하므로 접촉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시신과 관련된 경우에는 동정적인 면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사장은 그 후에 정결케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생활을 일반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구별시키는 일련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일부 예물은 제사장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의무로서 이스라엘에게 언급되었습니다.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먹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람들의 책임이었습니다. 31년에는 제사장들에게 음식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면에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45, 1부터 17까지는 이 전체 구절의 두 번째 주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유지와 성전 직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세 개의 하위 섹션이 있습니다. 우선, 45, 1부터 8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45, 1부터 8까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책의 끝까지 읽었다면 그것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45, 1부터 8a, 어쨌든, 8b가 아니라 45, 1부터 8a는 우리가 나중에 48:8부터 22까지 읽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약하고 구별할 땅의 특별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지파의 영토와는 별도로 구별된 지역. 이 예약을 포함해 다양한 섹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8마일 x 6.5마일, 거의 53평방마일의 정사각형 면적인 성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게 전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53평방마일은 그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부지에 할당된 면적은 약 17에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성전 지역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레위인들을 위해 53마일이 더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 도시들의 집합체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민수기 35장에서 레위인들은 그 땅 전역에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족 지역에는 레위인들이 로타에서 종교적 의무를 보고하기 전에 살았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온 땅에 걸쳐 그들을 위해 도시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그들은 사원 직원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봉헌되었기 때문에 한 영역에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옛 성읍들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관련된 한 그룹으로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장의 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지역 주변의 두 개의 제사장 토지. 그리고 그곳은 소와 양떼를 위한 목초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구역의 동쪽과 서쪽에는 다른 두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왕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땅은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실 우리는 순서대로 도시에 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지역과는 별개였습니다. 이곳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업을 위해 할당된 종교 구역과는 별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 26.5 평방 마일의 도시 면적이었습니다.

도시와 인접한 땅.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국가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족 구성원은 자신의 부족 지역에서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도시에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도시의 거룩함에 대한 이 개념이 책의 끝 부분인 48장에서 바로 지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듯이, 이 큰 보호 구역의 양쪽에 이 두 개의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에게 많은 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 지역에 대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땅을 받았고 보호구역의 거룩한 부분 양쪽에 있는 왕관 땅의 크기를 세어보면 부족 지역의 약 3분의 2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왕관 재산으로 왕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한 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로 이전 시대에 큰 문제가 되었던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작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의 고전적인 측면과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왕위 소유로 할당했는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호구역에 대해 들은 것은 정말로 요점은 왕에게 주어진 이 넓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 폐하에게는 땅이 많기

때문에 차지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경고와 함께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땅. 그래서 48장의 자료에 8b가 추가되어 이를 드러냅니다. 내 방백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을 억압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48 자료가 45절에 다시 포함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포로 이전 왕들에게 수사적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의 방백들아, 강포와 압박을 버리고 공의와 공의를 행하라. 내 백성을 쫓아내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었으며, 추방자들은 수년에 걸쳐 이런 일이 일어났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정의에 대한 오랜 이상은 왕의 통치와 관련된 곳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에도 약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왕과 가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원의 구성원보다 낮은 수준의 성자이지만 그들은 성자로서 이 보호구역에 속한다. 그러나 주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왕이 항상 영토를 장악한다면 경제적 안정이 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살고 부양하며 삶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사찰 관계자들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은 사람들이 성전 직원인 하나님께 일부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과 공급품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차례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충분한 자원을 가지려면 왕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끔찍한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45, 9부터 12까지, 우리는 이미 9를 보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주요 섹션의 두 번째

부분이고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이며 암묵적으로 성전에 충분한 헌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이전의 옛 왕들의 수사적 연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에서 12까지는 도량형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도량형이 다르고 어느 가게에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다른 가게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하려 한다면 그것은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널리 퍼져야 할 공정성의 일부입니다.

또 궁극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6시까지는 정직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복수형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저울과 척도를 갖는 것은 상인들 사이에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17장에는 성전 인력을 공급하고 성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또 다른 방법인 제사와 예물이 성전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규 십일조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60분의 1을 성전에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의 경우에는 기름으로 제물을 사용하였고, 소제물에서는 곡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농부는 수확한 기름의 1%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0.5%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제물과 제물이 충분할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부분에서 성전 직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7일까지 왕은 축제 기간과 기타 성일에 특별한 헌물을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 물질적인 공급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달력에 명절과 절기가 다가오면 왕은 국고를 털어야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40~48장에서 왕에 대해 사용된 유일한 단어인 왕자(prince)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인식되는 왕에 대해 사용됩니다. 34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는 이 왕자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에서 23까지는 앞서 말했듯이 왕의 의미를 지닌 목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목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 모두에서 왕족과 강력한 연관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7-25장에도 이 왕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시 언급되어 있지만 37장 22절과 24절에서도 그는 왕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왕과 동일하지만 연관성이 훨씬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는 한, 구약 성경은 모두 왕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왕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 앤드류 왕자, 윌리엄 왕자, 해리 왕자를 생각합니다. 예, 왕실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히브리어 단어와 관련된 왕족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고귀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부족 지도자든 국가 지도자든 이 용어로 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왕자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반드시 왕실 용어가 아닙니다. 에스겔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왕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40~48년에는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자, 왕자, 왕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37장에서 왕이라는 단어를 혼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석에서는 국가 원수를 번역했습니다. 국가 원수는 왕보다 훨씬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망명자들의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왕들에게 싫증이 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군주제 정부 형태에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상 특정 시점에 미국에 거주했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망명자들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 역사에서 경험했거나 들어본 왕권은 전체주의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지도자를 갖고 있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혀 제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명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고,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는 종교적 이탈을 용인하거나 조장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망명자들 사이에서 매우 널리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화당원, 공화당원,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확고한 사람들이었고 군주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어떤 의미에서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에게는 목회적 감수성이 있다. 그는 자신이 왕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원수, 국가 원수, 대통령이 마음에 드신다면, 오 예, 우리는 이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는 이 새로운 국가 원수와 이전의 나쁜 국가 원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고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왕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피하고 있다는 목가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다윗 가계의 왕에 대한 이전 선지자들이 유지했던 예언적 전통에 여전히 충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들에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포로 이전 군주제의 부정적인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제시되고, 이 국가 원수는 국민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일종의 입헌군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공격적인 말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반대 요인을 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명자의 합리적인 적대감. 그들은 한편으로는 군주제에 싫증이 났습니다.

반면에 그는 그러한 예언적 희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달성하기 어려운 균형 잡힌 행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여기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40-48년에 이 왕자나 국가 원수에 관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 언급되는 내용의 대부분은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40-48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대상은 성전입니다. 그것이 주요 초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문제가 왕에게 영향을 미칠 때 왕도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래의 왕권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성전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 능력을 설명할 여지가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왕에 대한 다소 제한된 표현을 갖게 됩니다. 45:18부터 46:15까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45:18부터 25까지와 46:1부터 15까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18시 25분은 종교 달력을 통해 실행됩니다. 희생제물과 제물, 희생의 피의 사용이 포함된 축하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종교 달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18시 20분에는 봄의 종교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뜰과 성전에서 매년 열리는 오염 제거 의식이었습니다. 속죄제의 피는 성소를 더럽힐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성전을 더럽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성일을 길게 언급하고 있는 절기를 기록한 레위기에는 봄의 절기가 아니라 가을의 절기, 즉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번 봄 절기와 같은 목적을 지닌 연례 제염 예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봄에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스위치가 있고, 왜 가을 속죄일은 없지만 이번 봄에 해당하는 행사는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45절까지는 다시 물음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한 절기와 초막절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 에스겔아, 당신은 오순절을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기절기, 연례절기 중 두 가지밖에 없는데 왜 오순절이 언급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 축제를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바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듣게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다시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46:1부터 18까지, 사실은 46:1부터 15까지인데, 그 다음에는 16부터 18까지를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성전 지역에 적용되는 다른 종교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1시부터 12시까지 사찰 구역에 입장합니다. 우선 1부터 3까지, 그리고 4부터 7까지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1~3절, 그레 1~3절에서는 안쪽 동쪽 문루는 바깥쪽 동쪽 문루처럼 닫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루는 누구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 중에 성전을 통해 들어오셨던 방식인 기념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월삭에는 왕의 경우에는 안쪽 문루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특권, 즉 제단에서 자신의 특별한 제물을 희생하는 제사장들을 보기 위해 안쪽 문루 안쪽 끝에 서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도 절을 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무슬림식 절입니다. 그는 제단에서 자신의 희생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쪽 문루와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특별한 접근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날 안식일과 월삭에는 백성들이 안쪽 문루 바깥쪽에 서서 여전히 바깥뜰에 서서 열린 문들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제물이 관련되는 제단 의식을 볼 수 있도록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확성기를 통해 존스 씨와 그의 가족이 여러분의 희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존스 씨와 그의 가족은 자리에 앉아 계단을 통해, 복도를 통해 높은 제단을 볼 수 있었고, 존스 씨와 가족이 희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권이었으며 그들도 역시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일과 월삭에 왕이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2절의 제물이지만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자신의 땅에서 뽑아낼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보면 백성들이 안뜰, 곧 바깥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북쪽과 남쪽 바깥문으로 들어와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군중 통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두 개의 질서 있는 흐름을 형성해야 하며, 북쪽 바깥문으로 들어와 남쪽 문으로 나가거나, 남쪽 바깥문으로 들어와 북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들은 U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쪽으로 왔다가 같은 쪽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통 통제, 인적 통제, 매우 현실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바깥뜰에서 어슬렁거리고 일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무질서한 교통 정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전체 과정을 저하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들이 가져올 연속제물의 양, 곧 백성이 가져올 분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는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VIP이고, 왕이고, 신성한 지위를 갖고 있고, 따라서 또 다른 특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왕은 안식일과 월삭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그가 자원 제물을 가져올 때마다 다시 안쪽 동쪽 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었고, '내가 주고 싶어서 드리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헌금을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단지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제물을 부분적인 제물로 가져오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방에서 가족과 함께 제사 식사로 요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 헌물, 즉 번제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나는 신성한 식사를 위해 아무것도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희생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높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동쪽 문루에 와서 제단 의식이 거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가져올 때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무 헌물을 가져올 때와 동일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출애굽기 29장에는 매일 드리는 헌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이었고, 매일 아침과 저녁이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는 또 다른 작은 변형이 있습니다.

아침 제사만 언급되고 저녁 제사는 왜 언급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NRSV가 어린 양과 소제를 드려야 하는데 NIV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에게 말씀드린 것이 더 나은 독서입니다.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NIV가 제대로 해냈습니다. NRSV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시부터 18시까지,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신성한 연설의 공식, 메신저 공식과 함께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소 특별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45:8-9의 각주입니다. 그리고 이는 왕의 토지권 문제를 명확히 합니다. 왕이 그의 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특정 토지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었고 왕은 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궁중 직원 중 특히 좋은 일을 한 직원에게 자신의 땅 중 일부를 주고 그 땅으로 보상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결은 그렇습니다. 그 특정 신하가 그 땅을 가질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희년 50일까지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설명하면 이 토지 보유액입니다.

그 예약의 끝 부분에서 왕실 재산은 실제로 왕실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희년까지 50년 정도 임대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토지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섹션은 이상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48~40절, 45절 8~9절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신에 왕에 관한 종교 절차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놓아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되돌아보면 이 왕족에게는 왕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예를 언급하기 때문에 왕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체로 왕족이고 왕족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일한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는 유배 이후 왕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왕이 다윗 왕조의 첫 번째 갱신인 갱신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에스겔서보다 앞선 것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46, 19~24에서 우리는 43장에서 시작된 환상적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얻습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지점에서 나온 것은 황동 압정, 실용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야외 주방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외 주방이 두 세트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권리가 있는 희생제물과 다른 제물의 일부를 요리하고 굽는 데 사용되는 제사장용 부엌도 있었습니다.

이 곳은 성전 지역 북쪽에 있는 안뜰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바깥뜰에는 부엌이 넷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엌은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의무의 일부로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요리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위해 돌려받은 희생제물 중에서 자기들에게 돌려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부엌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이 부엌은 바깥뜰의 네 모퉁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개별 송배자들을 대신하여 음식을 요리하는 주방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약한 특정 방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각각 낮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개의 부엌은 바깥뜰의 네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이전에도 왔지만 이 시점에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언급과 20절의 속건제에 대한 언급. 속죄제는 예배자들과 관련된 죄의 영향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된 속건 제물이 있었고 일종의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글썄, 이건 놀라운 일이다. 앞서 에스겔서를 읽은 후 11장과 36장을 기억하십니까? 포로 생활 이후의 사람들은 언약의 의무에 대한 순종을 보장하기 위해 새 영과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상하는 것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놀라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신약성서에도 비슷한 긴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언급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글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장들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의 빛 가운데 성전 지역에서 신성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오시느니라. 그러므로 제사장과 백성, 제사장과 레위인이 관련되는 곳에 상응하는 거룩함이 있도록 모든 절차와 일이 수행되는 방식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실제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등한 두 언약 파트너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명확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레슬링입니다. 바깥뜰에서만 공개됩니다. 안뜰의 제사장들.

지성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확보하고 회복하려면 공간과 인력,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성전이 오염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고기와 희생의 피가 필요 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연례 의례는 끊임없이 흐르는 예배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전 직원의 지원에 대해 다소 평범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자국민을 지원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고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 직원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전에 기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으로 건전한 국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전 너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전통적이었지만 과거에는 결함이 많았던 왕권 문제는 높은 특권과 필요한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지침과 현재 포로들이 일반적으로 왕권에 대해 갖고 있는 혐오감을 열린 눈으로 다시 직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42~46항은 여전히 교회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며, 불완전한 백성의 끊임없는 화해, 적절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의 백업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문제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47장과 48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22과목,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 새 성전의 가동에 대한 비전입니다. 에스겔 43.1-46.24.